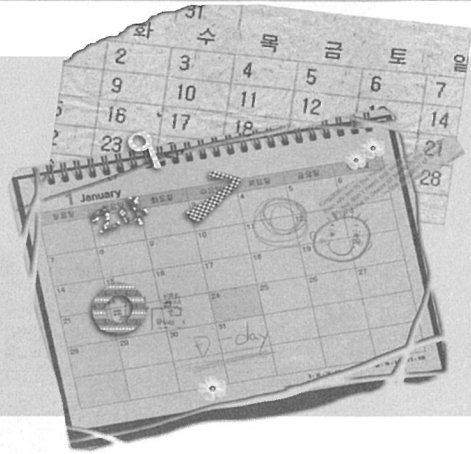


3월의 사양관리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낙농과 제공 (집필자: 최순호, 류재규, 김태일)



일반 사양관리

3월은 봄을 알리는 전령사와 같으며 “입춘대길 건양다경(立春大吉 建陽多慶)”이라 하여 봄이 시작하니 크게 길할 것이요, 따스한 기운이 도니 경사가 많으리라 하여 다가온 봄과 함께 모든 이에게 행복한 일이 가득하길 바라는 조상들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 모든 낙농인에게도 봄을 맞이하여 금년 한해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되는 3월은 한 해 농사의 계획과 준비를 하는 시기로 낙농가에서도 젖소의 사양관리를 점검하는 등 주변 환경을 돌아보며 젖소 및 목장관리 방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계획과 준비 점검을 하여야 할 것이다. 2014년 봄철에 대한 기후예보에 따르면 기온은 평년(10~14℃)과 비슷하며 일시적으로 쌀쌀한 날씨를 보일 때가 있으며 강수량은 평년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먼저 축사주변 환경정리와 소독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축사환기와 일광욕을 시켜야 한다. 우사의 환기와 채광은 가축의 건강에 매우 중요하므로 날씨가 따뜻해지면 운동장 사정을 고려하여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해주고 일광욕을 시키면서 운동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준다. 환기는 우사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하게 해 주고, 악취를 제거하며 습도를 조절하여 가축의 호흡기 질병을 예방할수 있으며, 채광은 가축의 피부에 대한 살균효과뿐만 아니라 칼슘의 흡수를 도와 비타민 D를 합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햇볕이 있는 따뜻한 날에는 일광욕을 시키면서 운동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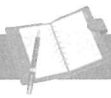
사양관리

첫째, 청결한 물을 자유롭게 섭취할 수 있도록 급수조 청소 및 관리에 신경을 써서 위생적인 급수에 신경써야 한다. 봄철에는 겨울동안의 비교적 질이 떨어지는 조사료 공급에서 양질의 청초가 급여되고 외부기온이 젖소가 활동하기에 좋은 환경으로 바뀌게 됨으로 젖소의 유량이 증가됨에 따라 음수량도 증가되기 마련이다. 착유우의 물 섭취량이 부족하면 우유의 생산량도 크게 떨어진다. 일반적인 젖소의 연령별 산유량에 따른 물 요구량은 처녀우(임신중)의 경우 27~32kg/일, 산유량이 9~23kg인 경우 30~83kg/일이며, 산유량이 36kg인 경우 86kg/일로 증가된다.

둘째, 양질조사료 생산을 위한 포장관리 계획을 세워야 한다.

유대 중 사료비의 비중이 날로 높아지면서 이와 관련하여 조사료 점검 및 사료허실 관리 등의 일에 소홀해서는 안된다. 특히, 낙농가에서는 착유우 능력에 따른 합리적인 조농비가 되도록 사료급여량을 점검하고, 사료비 절감을 위해 조사료포의 확보를 통한 자급 조사료의 생산 계획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셋째, 젖소의 생체리듬이 점차 회복되어 수태율이 향상되는 시기이므로 번식관리에 신경을 써야한다. 우선 번식 후보축은 적정 BCS(신체중실지수) 유지를 위한 영양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계획적인 번식관리를 하도록 한다. 착유우에 대해서는 부존사료자원 등을 활용하여 비유단계별 적정 영양공급을 해 주고 면역기능 강화 비타민, 생균제 등을 급여한다. 또한 분만 예정우에게 착유사료를 미리 급여하는 유도사양은 과도한 유선 자극으로 인해 산유능력이 개량된 고능력우의 유방에 부종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건유사료를 급여하되 분만이 임박할수록 단계적으로 배합사료를 증량 급여할 것을 권장한다. 또한 최적 영양관리에 의한 적기 성성속으로 초산월령이 24~25개월령이 되도록 하는데 후보축은 당장 농가의 수입이 되지 않지만 건강한 착유우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추위 등 소화기관과 골격을 충분히 발달시켜야 하는데, 배합사료는 제한급여하고 건초 등 양질의 조사료를 자유급여토록 한다. 착유우의 경우 정기적으로 유업체에서 받는 자료를 통해 간단한 계산만으로 얻을 수 있는 P/F비를 이용하여 간이 영양 모니터링을 하도록 한다. 또한, 동절기 동안 발정이 없었던 개체들에 대하여 운동, 일광 및 첨가제를 충분히 활용하여 정상적인 발정을 유도하고 세밀한 발정관찰을 통해 적기에 수태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방역 및 위생관리

3월은 계절변화에 의한 젖소의 호흡기 질환이 다발할 수 있는 시기이고 날씨가 풀리면서 농장 출입의 빈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차단방역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무엇보다 호흡기질환은 기온이 낮아서 발생하기 보다는 기온의 차이가 심할 때 발생하므로 밤과 낮의 기온이, 내부와 외부의 기온이 급격히 차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날씨의 변화로 면역력이 약한 신생 송아지들의 설사와 호흡기 질환 등 질병 발생이 우려된다. 어린 송아지의 경우 찬 공기가 바로 송아지 방에 들어가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 바닥이 습하지 않도록 깔짚을 충분히 깔아주며 낮에는 외부온도 상승에 의한 가스 발생이 높으므로 환기 관리에 관심을 가져야겠다. 신생 송아지는 면역증진 및 영양공급을 위해 가능한 분만 직후 신속하게 (6시간 이내) 초유를 급여하고 보온등을 이용하여 충분히 따뜻하게 보온을 해준다.

구제역 예방접종에도 일정에 맞추어 송아지는 2개월 령에 1차 구제역 예방접종을 하고, 4주 후 2차 접종을 실시하여야 하며, 모든 소는 4~7개월 간격으로 접종을 해야 한다. 백신은 얼지 않도록 냉장보관하며, 한번 개봉한 백신은 36시간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농가의 가축사육두수, 거래내역, 출입자, 출입차량, 및 소독실시 사항 등은 방역일지에 빠짐없이 기록해야겠다.

지난 1월 중순 이후부터 발생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 많은 가금류 사육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 축산업종사자 및 축산농가들이 초비상 사태로 차단방역에 온갖 힘을 쏟고 있으며 경제적 손실도 막대하다. 봄철 날씨가 풀리면서 농장 출입의 빈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다. ☺